

효율적인 공간을 원하는 공대 구성원 의견과 달리 고전양식을 원하는 대학 측의 의견 충돌은 결국 기형적인 건물 형태를 낳을 가능성을 높여뒀다

## 신공학관, '중앙 둠' 없애고 '양 팔' 길이 줄이고 제대로 된 모양 나올까 갸웃… 교수 사회 우려도 계속

### SPACE 21 건설사업 현황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국제】 설계안의 '효율성'을 두고 논란을 겪었던 SPACE21사업이 신공학관과 외국어대학 교수연구동 신축계획안 등의 논의가 마무리되고 '기본 도면작성'에 돌입함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종합체육관의 경우 지난달 30일 5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체육관 신축공사 시공업체 현장설명회'가 개최됐다. 오는 24일에는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 시공업체가 선정될 전망이다. 시공업체 선정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길었던 SPACE21 사업이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어대학관과 신공학관은 지난 9월 24일 개략적인 입면도가 총장에게 보고됐다. 외국어대학관의 경우 본래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어대학과 우정원 사이에 지어지는 '외국어대학관 교수연구동'은 현 외국어대학 건물과의 조화를 위해 타원형의 건물로 짓는 방향으로 결정돼, 현재 기본도면을 작성 중이다.

지난 2월에 건축학과 교수들이 '신공학관 계획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라는 제목으로 이현호 교수가 설계한 신축 계획

안에 문제를 제기해 진통을 겪었던 신공학관도 '몸'을 제거하고 건물 옆면의 'ㄷ'자형 건물 중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건물의 팔' 길이를 줄이는 계획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

총장실은 건축학과 교수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지난 6월 말 "공과대학(공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공대 측은 '저작권' 문제를 두고 법정공방 중인 한울건축의 설계도(1안)를 제외하고, (주)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안(2안)과 이현호 교수가 설계한 안(3안)에 대해 각 학과 교수들과 학생회, 동아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취합 결과, 2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총장실에 전달했으나 총장실 측은 구성원 대표뿐만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2안을 반려했고,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공대 학생회는 지난 9월 조속한 착공을 위해 설계안에 대한 설문을 시작했다. 공대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공대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몸' 구조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대학 측에 전달했다. 공대 학생회 조현원(건축공학 2009) 회장은 "학교 측에서 신공학관을 고전양식의 건물로 신축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며 "3안을 기

반으로 하되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은 중앙 둠 구조물을 삭제하고 건물의 팔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요구에 대해 사업단 측에서 SPACE21 대표건축가 이현호 교수(흉의대 실내건축학)에게 구성원 요구가 반영된 개략적인 건물 입면도의 작성은 의뢰했다. 작성된 입면도는 지난 9월 24일 총장실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 교수는 "현재 수정사항이 반영된 신공학관의 기본도면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완성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정된 설계안에 대해 교수사회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중앙도서관이나 예술디자인대학과는 달리 3안의 경우 건물이 'ㄷ'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둘러쌓아야 하는 외벽비율이 높아 건축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염려가 그것이다. 건축학과 A 교수는 "화강암 석재를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인조석을 사용하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겠으나, 설계된 건물의 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건물설계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공대의 현재 공간여건상 조속한 건립이 1순위인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설계안을 토대로 안전하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 ▶면 '뉴스메이커'에서 이어짐

이어서 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숙사 버스터어에 참가한 한 학생의 사연도 전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학생이 학교 근처 자취방에 방을 얻었는데, 얻은 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실망했지만 집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어서 차마 말씀드릴 수 못했다고 한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이 생활하는 자취방에 찾아왔는데,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현재의 주거문제와 기숙사 건립은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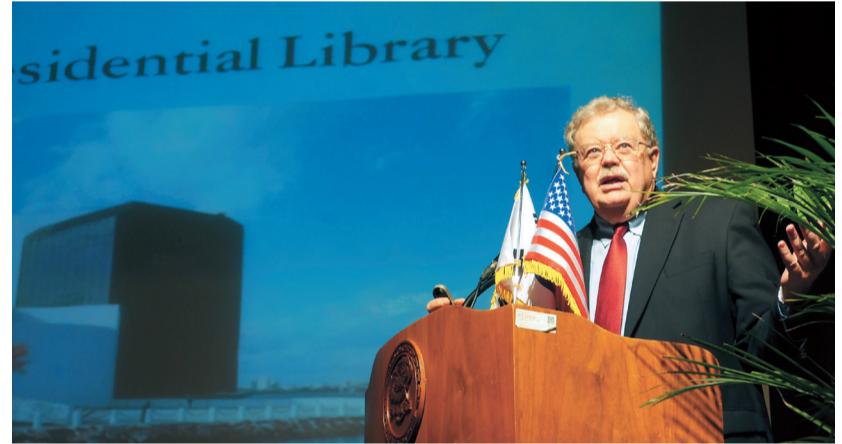
하지만 올해 상반기 착공을 예상했던 기숙사는 행정심판까지 내몰렸고,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절을 감안할 때 결국 내년으로 또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해결에 대해 앞장서서 나서야 할 동대문구청이, 오히려 지역 임대업자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면서 "학생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대학생 주거현실을 알리고 공공기숙사

건립을 뒷받침할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그는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방문해서 서울시의원 맹진영의원과 안규백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김명기 보좌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서 6일에는 동대문구청 유덕열 구청장과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면담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지난 여름부터 반복되는 '학생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형식적인 말이 반복됐을 뿐이다.

공공기숙사 건립절차는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강 위원장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현실이 마냥 낙관적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이 닿는 대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언제쯤 허름한 자취방에 사는 것조차 '미안해'하는 학생에게 보다 많은 기숙사 입사의 기회가 주어질까. 책임지고 힘써야 할 사람들의 뜻으로 남아있다.

## "대통령의 공문서는 중요한 역사자료"



### '미국의 대통령 박물관' 특강

이시은 기자 dtldms77@khu.ac.kr

【서울】 우리학교와 '주한미국대사관'이 함께 주최한 '미국의 대통령 박물관(The Presidential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특강이 지난 5일 오비스홀 1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도서관 관장을 역임한 미국학 전문가 마이클 디바인(Michael J. Devine) 박사가 강단에 올랐다.

디바인 박사는 미국사회에서 대통령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 그 역사와 운영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미 대통령 도서관의 역사는 세계적인 공문서 관리의 역사와 함께한다" 라며 "1940년대부터 도서관을 통해 미 대통령 공문서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대통령 문서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들의 공문서는 학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라며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한·미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국제캠퍸스 중앙도서관 11월 문화프로그램 안내

국제캠퍸스 중앙도서관에서는 11월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도서문화증진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책읽기의 즐거움'의 제16회 다큐 및 노트승선행하기 공모 수상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재능기부 문화프로그램에 따른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 「책읽기의 즐거움」 제16회 다큐 및 독서노트 승선행하기

1. 공모기간 : 2014. 5. 1 ~ 10. 31

2. 심사기간 : 2014. 11. 3 ~ 11. 7

3. 수상자 발표 : 2014. 11. 13(목)

4. 시상식

- 일자 : 2014. 11. 17일 ~ 21일 사이(후원 안내)

- 장소 : 대회의실

- 대상 : 수상자 15명 내외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0회 작품 전시회

1. 내용 : 산업디자인학과 출품 작품 전시회

2. 일자 : 2014. 11. 25(화) ~ 11. 26(수)

3.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2회 음악회

1. 내용 :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노수진 외 2인의 공연

2. 일자 : 2014. 11. 26(수) 12:00

3.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도서관 재능기부 문화프로그램,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상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개인이나 집단은 공연(음악, 연극 등), 전시회(그림, 사진, 모예 등) 등을 통해 재능을 자유로이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신청 방법 : 이선우(☎ : 031-201-3221, E-mail : asqa@khu.ac.kr)

2. 날짜 : 신청 접수 후 기존 행사 날짜와 조정

3. 행사 내용 : 자유 형식으로 하되 타 학생들의 공연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예: 연주, 전시)

4. 행사 위치 : 도서관 1층 로비

※ 전시회의 경우 상의 후 일정 조정 가능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ACE사업 학생공모전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 안내]**

■ 일시 : 2014년 11월 13일(목) 12:00 ~ 14:30

■ 장소 : 국제캠퍸스 국제경영대학원 시청각실

1) 서울캠퍼스 참석학생 현장 등록 후 교통비 지원  
2) 배달 수업이 있는 학생은 현장 등록 후 공결처리 업무연락 발송  
3) 참석자 전원에게 ACE우수사례모음집과 소정의 기념품(16G USB)지급  
4)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도시락 제공

■ 참석대상 : 공모전 수상자(시상 및 사례발표 예정), ACE사업 학생모니터링위원, ACE사업 참여 학생, 기타 ACE사업에 관심 있는 학생 등

■ 문의 : 교육사업추진팀 ☎ 02-961-2388~9 / ace@khu.ac.kr

### 2014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하세요!

2014. 11. 3(월) ~ 12. 1(월)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서울지역대학생(서울소재대학생, 서울고교졸업 타지역 대학생)

[지원범위] 일반 상환 학자금 소득 7배위하의 대출자와 디자인 가구 구매자는 발생하여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일반 상환 학자금 소득 8분위 대출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

[접수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http://www.seoul.go.kr)) 문의사항 ☎ 120 1148-249

1. 모집분야 : 국제상용화학학과 / 국제개발학학과 / 국제경영학과

### 2015학년도 전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 / 박사 과정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0명

3.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4. 전형방법

국제거주 저학자금(석사) : 서류(40%), 영어인터뷰(30%), 영어작문시험(20%)

해외거주 저학자 및 외사과정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국제외국어 저학자금(석사) 인턴부문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5. 전형일정

입시설명회 : 2014년 11월 17일(금) ~ 11월 28일(금)

국제대학원 11월 21일(금) 19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학관 103호

※ 국제대학원설명회는 2014년 11월 19일(수) 별도로 예정(시간 및 장소 추후공지)

6. 합격자발표 : 2014년 12월 22일(월)

7. 계약서류

-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 [gsp.knu.ac.kr](http://gsp.knu.ac.kr)- 전형방법 : [gsp.knu.ac.kr](http://gsp.knu.ac.kr) 전형방법- 전형방법 : [gsp.knu.ac.kr](http://gsp.knu.ac.kr) 전형방법